

해수욕장 여름장사 망쳤다

젖은 비·태풍 여파 여수 등 피서객 절반 이상 줄어
파라솔·텐트 임대업자 폐장일 남았는데 휴업 신청

전남·북 지역 유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상인들이 굶은 날씨 탓에 올 여름 특수를 망쳤다.

장마와 국지성 호우가 지속된 데다 태풍 무이파(MUIFA)가 휴가 절정기인 8월 초에 초강풍과 함께 몰아닥쳐 피서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에 지리한 장마비가 계속되면서 피서객들의 전남·북 방문이 줄어들었다.

여수 만성리해수욕장은 지난 6월 25일 개장했지만, 개장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장마 기간과 겹치면서 햇볕이 든 날이 10일에 불과했다. 17일 주변 상인들은 “해마다 30곳의 상가가 문을 여는데, 현재는 12곳만 장사를 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여기에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각 상가에 공급되는 해수공급관이 80m 가량 유실되면서 물이 끊겨 장사를 하는 상가마저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여수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 수는 모두 16만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여명보다 53.3% 줄었다.

특히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파라솔·텐트 임대업자는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았다. 해변에 설치된 텐트와 파라솔 등이 무이파로 크게 파손되고 일부 레저 사업장은 해수욕장 폐장일이 한참 남았음에도 휴업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수 만성리해수욕장에서 텐트 임대하는 박모(43)씨는 “올 여름엔 피서객들이 거의 없었다. 지난해 절반 수준도 안 된다”며 “장사를 망쳤을 텐데 태풍까지 불어 텐트 50개 중 40개가 망가졌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9개 해수욕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변산·고창 구시포·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이 지난 6월 말 일제히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햇볕을 찾아보기 어려운 굶은 날씨와 중부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서객 반짝 특수를 기대했던 주변 상인들은 울상이다.

18일 전남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468만6000여명으로 지난해 537만3000명보다 68만7000명 감소했다.

전남도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경우 지난 7월 10일 완도 명사십리와 해안 송호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문을 연 도내 66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15일까지 444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0만여명에 비해 46만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보성 울포해수욕장에서 숙박업을 하는 김모(45)씨는 17일 “지난해보다 손님이 30%가량 감소했다”고 한숨을 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광주천 수달 5마리 이상 서식”

배설물 151곳서 발견 ... 내달초 보고서 제출

광주천에 수달 서식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개체수도 5마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시는 18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한 광주천 수달 모니터링 결과 수달 배설물이 151개 지점에서 371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천 상류(제2수원지~천교)와 중·하류(양유교~상무대교 영산강 합류지점)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수달 서식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수달의 활동이 왕성한 야간을 피해 주간에만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광주천 상류지점에서는 13곳에서 93개의 배설물, 중하류에서는 138곳에서 286개의 배설물이 각각 발견됐다.

수달이 일정한 장소에서만 배



설하는 습성을 감안할 때 상류와 중하류에 각각 수달 서식지가 따로 존재하며 개체수도 최소 5마리 이상에서 최대 10마리 이상일 것으로 조사단은 분석하고 있다.

광주발전연구원, 포유류전문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연합 등에 소속된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개체수의 최종 판단을 위해 배설물의 화학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로, 다음달 초쯤 광주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날씨

맑은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24/30°C | 서울 | 구름많음 | 21/26°C |
| 목포 | 구름많음 | 21/26°C | 인천 | 구름많음 | 23/28°C |
| 여수 | 구름많음 | 23/28°C | 대전 | 구름많음 | 23/30°C |
| 나주 | 구름많음 | 23/30°C | 전주 | 구름많음 | 22/28°C |
| 완도 | 구름많음 | 22/28°C | 광주 | 구름많음 | 21/28°C |
| 구례 | 구름많음 | 22/28°C | 부산 | 구름많음 | 22/28°C |
| 강진 | 구름많음 | 22/28°C | 대구 | 구름많음 | 23/30°C |
| 해남 | 구름많음 | 21/28°C | 충청 | 구름많음 | 21/28°C |
| 장흥 | 구름많음 | 22/28°C | 영광 | 구름많음 | 23/30°C |
| 순천 | 구름많음 | 23/30°C | 진도 | 구름많음 | 21/28°C |
| 영광 | 구름많음 | 22/28°C | 군산 | 구름많음 | 22/28°C |
| 진도 | 구름많음 | 21/28°C | 남원 | 구름많음 | 21/29°C |
| 전주 | 구름많음 | 22/30°C | 홍산도 | 구름많음 | 21/25°C |
| 군산 | 구름많음 | 22/28°C | | | |
| 남원 | 구름많음 | 21/29°C | | | |
| 홍산도 | 구름많음 | 21/25°C | | | |

| 〈오전〉 바다 | 중랑 | 파고 | 지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불쾌지수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0.5m | ☀ | ☠ | ☹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0.5~1.0m | ☀ | ☠ | ☹ |
| 〈오후〉 바다 | 중랑 | 파고 | 미물 | 쌀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북서~북 | 0.5~0.5m | 목포 | 05:06 | 10:19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0.5~0.5m | 여수 | 17:38 | 22:39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0.5~1.0m | | 11:55 | 05:35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0~1.5m | | 23:49 | 17:44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0(토) | 21(일) | 22(월) | 23(화) | 24(수) | 25(목)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23/29 | 23/30 | 22/30 | 23/30 | 23/31 | 23/31 |



日 대학생들 한복 체험 세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대 2011년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오사카대학교를 비롯한 일본 14개 대학 57명의 학생들이 18일 광주항교를 방문, 한국 전통복장을 입은 채 다양한 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초기 사고’ 눈 부상 가장 많다

8~10월 집중 발생 안전 주의

풀이나 곡식을 벨 때 쓰는 예초기 사고가 8~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추석 성묘객 등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 319건을 분석한 결과, 8~10월에 절반이 넘는 198건(66.7%)이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친 부위는 눈이 147건(46.1%)으로 압도적이었으며 다리·무릎·발·발가락이 90건(28.2%)이었다. 사

고는 주로 40세 이상(276건, 86.5%)에서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72건(22.6%)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초기 사고 대부분이 4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주로 쓰는 연령대라는 측면도 있으나 청년층보다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중 돌이 튀어 눈에 들어 가거나 날이 부러지면서 신체 일부에 박히는 등의 사고가 가장 많다”면서 “예초기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행뉴스

광주 시내버스 21일부터 정상운행

각급학교 개학에 맞춰

광주시가 각급 학교 개학 시기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규모를 여름방학 이전 수준으로 증차해 운행한다.

이번 조치로 평일 기준으로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 29개 노선은 69대가 늘어나 운행간격이 2~3분, 운행대수가 적은 지선 20개 노선은 26대가 증차돼 4~5분 가량 단축된다.

또 남구 진월동, 서구 화정동, 백일

지구 등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암 73번은 차량 3대를 증차해 현행 18~20분 간격에서 12~14분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시내버스의 에너지 절약과 업계의 수입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급감하는 여름방학 기간(7월23일~8월20일) 학생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감차 운행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82 “추석 명절맞이 보청기 무료점검 안내”

계절 변화에 따라 보청기 A/S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일시 : 2011년 9월1일 ~ 9월2일 (오전10시~오후6시)
- * 장소 :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시 동구 서석동81-1 동구청오거리)
- * 접수 : 본점 및 각지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화 접수도 받습니다)

본점 062-227-9940 | 서울점 02-765-9940 | 순천점 061-752-9940

충장점 062-227-9970 | 목포점 061-262-9200 | 장흥점 080-222-9975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약오리탕

한/식/뷔/페

6,000원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고가 한식뷔페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게오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인비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항암육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짬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충성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